44. 안철수 “양 극단 제외한 사람들 모여 경쟁… 국민 선택 받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내년 대선 레이스의 상수(常數)다. 안 대표가 정치권에 등장한 것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직을 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하면서부터다. 이후 4년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는 ‘야당 대권 후보 도전(2012년)-국회 진입(2013년)-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014년)-탈당 및 국민의당 창당 주도(2015년)-3당 정립구도 구축(2016)’이라는 기록을 써나갔다. 이제 정치적 ‘패스트 팔로어’에서 ‘퍼스트 무버’로 넘어가야 할 과제를 안은 안 대표에게 또 다른 시험이 닥쳤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선거홍보 관련 리베이트 의혹이란 암초까지 만났다. 하지만 안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시간의 절반 이상을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 미래 먹거리에 할애했다.   
  
국민의당을 여야 대권 주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플랫폼정당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 자신이 ‘안철수 현상’에서 ‘실체’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듯이 반 총장도 이제 유사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즘 뭐를 고민하고 있나.  
  
“내가 꿈꾸는 것은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이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건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구의역 사고, 정운호 게이트 등이 쏟아져 나왔다. 대통령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 분노가 커 위로가 안 먹힌다. 빈부·남녀·교육·지역·세대 간 격차들이 중층화해 있는데 이를 풀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가슴 속 깊이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안 대표가 구상하는 해결책은 뭔가.  
  
“내 머릿속을 꽉 채우는 키워드는 축적, 미래, 세계다. 우선 성공보다 실패에서 오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실패하면 재도전 기회를 주지 않고 매장해 버린다. 시행착오에서 비롯되는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다. 내가 벌써 10년 전에 한 얘기다.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니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결국 성공함으로써 그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바로 그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이 돼야 한다.”  
  
―이정동 교수가 쓴 ‘축적의 시간’에서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그걸 읽고 많은 걸 느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2030년에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2060년에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가 만들어진다. 경제 상황은 나쁘고 인구 구조는 악화하며 기술 트렌드는 뒤떨어지는 3중고를 극복해야 한다. 영국에서 23일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투표를 하는데 우리는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걱정이다. 창의적 교육도 중요하다. 교육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다보스포럼이 조사한 ‘주요 기술과 티핑 포인트 전망’에 따르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할 때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70%가 없어진다.  
  
“교육부를 포함해 지금 교육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공정경제론’을 내놨다. 포용적경제는 담겼는데 스마트경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용어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주장하는 건 일단은 공정한 시장 구조와 시장 경쟁을 통해서만이 성장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공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많이 늦었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 돈을 퍼부으면 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무책임하다.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  
  
―국정운영의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 국정의 연속성을 위한 방안은.  
  
“기본적으로 협치 문화가 생겨야 한다. 북유럽 국가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장기적인 ‘롤링 플랜’을 만들어 이를 존중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의 연속성이 생긴다. 우리도 대북관계, 복지, 교육,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합의하고 1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도 사라질 거고.”  
  
―정치 얘기를 해보자. 4·13총선 민심은.  
  
“3가지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되니까 바꾸라 하는 것, 국회 공전하지 말고 제발 좀 민생 좀 챙기라는 것, 미래에 대비하란 것이다.”  
  
―20대 국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는.  
  
“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서야 한다.”  
  
―호남은 언제나 대선에서 승리할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설에 동의하나.  
  
“호남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해준 이유는 정권교체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는 그걸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숙제를 받았다는 마음가짐을 공유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이다. 궁극적으로는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 돼야 한다.”  
  
―자신이 시대정신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나.  
  
“대선을 생각하기에 앞서 지금 국가적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게 먼저다.”  
  
―선거는 구도다. 여권은 지금 내년 선거를 ‘충청+대구·경북(TK) 대 호남’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선거구도를 지역으로 나누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시대정신은 통합이다.”  
  
―그건 기대치고 정치는 현실 아닌가.  
  
“내가 통합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 나는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걸 이뤄야겠다는 사명감이 있다. 그래서 양 극단을 제외한 사람들을 다 국민의당으로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게 플랫폼정당이다. 우리나라를 정말로 변화시키고 통합시키려는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야 된다.”  
  
―플랫폼정당이 되려면 다른 대권 주자들이 뛰어들고 경쟁해야 한다. 손학규·김부겸·유승민 등과 함께 하자고 얘기했나.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 중이다. 열심히 하고 있다.”  
  
―접촉하는 분들, 플랫폼정당 취지에 동의하나.  
  
“큰 방향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많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특히 공들이는 것 같다.  
  
“우리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유승민 의원은 어떤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과 방향성이 비슷한 분이다.”  
  
―그분들로서는 함께했다가 괜히 안철수 대권 후보 들러리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 걱정들 하실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단일화해야 야권이 승리한다고 하고, 김종인 대표는 단일화는 쓸 데 없는 일이라고 했다. 누구 말에 동조하나.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안 대표의 대권 의지는 강한가.  
  
“대권 의지라기보다 사회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정치는 국민들이 불러주셔서 거기에 응답한 거다. 정치는 저한텐 적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명의 문제다.”  
  
―안 대표에게는 사회개혁 의지가 곧 대권 의지인 것 같다. 사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양보했다. 대권 의지가 강해진 계기는.  
  
“정치에 참여해 내부 모순적 구조들을 보면서 강해졌다. 하나씩 정치적 고비와 경험을 겪어가면서 이걸 꼭 바꿔야겠다고 하면서 의지가 훨씬 더 강해졌다.”  
  
―정치인 안철수는 다른 정치인과 뭐가 다른가.  
  
“초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 총장이 안철수 지지층을 흡수해 갔다. 조금 초조하지 않나.  
  
“아닌 거 아시면서. 하하하. 기본적으로 대권 지지율 등락에 별 관심이 없다. 그랬다면 벌써 한창 높을 때 2011년(서울시장 선거), 2012년(대선) 때 들떠서 나오든지 했을 것이다. 본질,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건지 그것만 집중한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안철수 현상’에서 ‘실체’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마 반 총장님도 이제 현상에서 시작해서 실체로 가는 과정을 겪을 거 같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일단은 제재 국면이 실효성 있게 최대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만 제재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당이 위기다.  
  
“이상돈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처할 거다. 만에 하나 잘못이 있다면 당헌·당규대로, 원칙대로 한다.”  
  
―당헌·당규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  
  
“기소만 돼도 당원권이 정지된다.”  
  
―문제가 불거진 뒤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을 만나 소명을 들어봤나.  
  
“직접 보지 못했다. 한쪽 설명을 먼저 듣기보다는 진상조사단에 맡길 문제다.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가야 한다.”